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창세기 15:1-7, 갈라디아서 1:6-10

정운돈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더 성령충만해야 하고 지혜충만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이념적 갈등에 빠져 있다. 나름대로는 다 애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과유불급이다. 애국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독립한다고 해서, 이념을 성취한다고 해서,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과 맞지 않으면 다 갱신해야 한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 나라들도 행복하지 않다. 이혼도 너무 많이 하고, 마약에도 많이 빠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었을 때,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나라가 행복하게 된다. 치우치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 어떤 교단은 약기를 전혀 안 쓴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약기로 찬양하라고 하지 않나? 박지희 목사님께 찬양에 대해서 여쭙본 적이 있다. 찬양과 음악의 차이가 무엇인가 했더니, 일반 음악은 기능이 중요하지만, 찬양은 가사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태도가 너무 좋아도 박사, 음정이 안 맞으면 거슬리게 된다. 그래서 본질을 계속 찾아가도록 갱신해야 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에 처해 있었다. 할례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유불급이다.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 버리게 된다. 그러면 형식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다. 필요하다. 갱신된 형식, 중심이 담긴 형식이 필요하다. 본질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형식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갱신해서 균형을 맞춰 가야 하는 것이다.

서론 : 갈라디아서의 배경

(1)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묵회 서신이다. 본문 1:2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라고 수신자를 설명했다. 갈라디아 지역은 넓은 곳이다. 여기에 여러 곳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학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 그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도 남(南) 갈라디아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학교에서 역사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터키 남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디베 지역이 바로 남 갈라디아 지역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초창기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 현상이었다. 유대인과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였다.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이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거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구약의 전통, 즉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사, 절기, 성일,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천 년이 넘는 전통이었지 않나.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천 년 이천 년 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직'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았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하고 한 다섯 번 물어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속 물어보면 '글쎄요, 그렇게 말이에요' 하는 말들이 나온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을 받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모래 가서 살인을 했다. 몰래 하고 난 뒤에 다음주에 또 설교를 한다. 그 다음 주에 또 복면을 하고 몰래 살인을 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한다. 내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아닌데, (웃음)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구원받겠는가? 벌써 조용해지지 않나. (웃음) 그러면 우리는 살인을 안 했는가?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했다. 간음을 안 했는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했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도둑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고, 간음한 자라는 말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가. 예수님이 구원자 맞는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나만 바라본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게 안 되었던 것이다.

(2)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복음보다 율법, 행위에 계속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따진다. 체질이 그런 것이다.

①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천지처럼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 우리의 정욕, 연약함, 율법주의, 이기심, 돈 중

심, 성공 중심, 정신적 문제, 가정적 문제, 이념적인 것을 계속 악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② 두 번째 목적이 있다.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③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변명한다.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할례를 강조했을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강조했겠는가? 태극기를 강조하고 촛불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구원을 위해서이겠는가? 아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갖다붙이는 것이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라. 본질을 붙잡아라.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믿음부터 회복해야 한다.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바울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서 1:1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바울의 자기 변명이다. 왜 그랬는가? 강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산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산다. 어릴 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두 시간 하시는데, 절반 이상이 공자 맹자 이야기였다. 교회에 온 건지 학당에 온 건지 모르겠다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제가 서당에 온 건지 교회에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셔서 목사님을 세우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았다. 그때부터,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

④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 2장은 바울의 권위에 대한 변명이다. 3, 4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5, 6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닌가. 이 부분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아니다. 성령충만을 받아서 인도를 받으면서 균형을 찾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1.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

(1) 다른 복음의 출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다. 신천지는 신기한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를 밝히는데, 이것들은 몰래 들어온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유자다. 스스로 성령인도를 받아서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4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참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율법과 이단의 종,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2)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갈라디아서 3:10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 그들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겠는가.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시선이었어서 다듬어지지 않았다. 직선적이다. '어리석도다' 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다. 계속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3) 초등 교사 수준에 불과한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24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가이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다.

(4)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신앙 방식이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4:10-11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들은, 안식일과 세 절기를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고 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몇 번 안 지키면 지옥에 가는가. 기준이 없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얹어매는 것이다.

(5) 사람들의 주장과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배도자가 오고 구원자가 온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구원자가 이만화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다라방을 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지교회를 하는 것은 정말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라방을 하고 뭘 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지속될 수 없다. 오직 예수여야 한다.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여야 한다. 믿음의 동기로 해야 한다. 그러면 메시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국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와 후대를 붙여주실 것이다.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부족해도 된다. 넘어져도 된

다. 그러나 바른 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도 항상 갱신해야 한다.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인가.

(6)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 지우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5:1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7)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다른 복음이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중 하나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더라도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3-4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2.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

(1) 갈라디아서 1:4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열두 가지 제양과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다.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직접 주신 말씀이다. 강단메시지도, 세계복음화 메시지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 목회자, 전도자가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 왜 저 사람만 쓰느냐 하는 것은 성령인도를 못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11-12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이 강단메시지, 세계복음화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 된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라. WRC메시지도 마찬가지다. 1만 5천 명을 위해 주신 메시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믿으라. 믿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가장 크게 성취되게 되어 있다.

(3)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16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구절이다.

(4)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19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20을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이다.

(5)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3:2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겠는가. 복음을 듣고 맞다 하고 인정하면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6)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5-6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창세기 15:1-7을 보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인가, 할례가 먼저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다. 바울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그 유포까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7) 그래서 갈라디아서 4:6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교 중에서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없다. 딱 하나, 무당이 귀신을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요 근원이신 줄 믿는다.

결론 :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목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후반부 5장,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다.

(1)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19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빛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 전도인들은 끊임없이 다시 수고를 해야 한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 주일성수도 잘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도록 계속 훈련을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3오늘을 도전하고,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하고 있다. 집중전도신학원 훈련도 받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는 것이다. 구역, 다락방, 지교회 사역자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내가 가르쳤던 중학생 아이가 있었다. 25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착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 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유가 뭐가 했더니, 어머니가 살인을 해서 18년 형을 받아서 형무소에 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출소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미용 공부를 미리 해서 돈을 모으고 어머니 모실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왔다. 지금 압구정에서 큰 미용실을 하면서, 기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가. 어머니가 해 준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런데 그 어머니를 오히려 모시고 돕도록 갱신한 것이다.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못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 2등이 되었다. 임상병리사가 되어서 결혼을 잘 하고 잘 살고 있다. 너무 신기해서 내가 물어봤다. “어떻게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셨는데, 고등학생 때에 갑자기 개혁이 되었니?”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기가 보육원에 있는 것이 어머니가 자기를 버려서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한다. ‘내가 너무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정신차려서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갱신할 수 있다.

(2) 갈라디아서 5:13에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다. 중직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훈련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집중신학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자유다. 그러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자유하는 종이 되라. 더 헌신하고 더 훈련받으시기 바란다.

(3) 갈라디아서 5:14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지금,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정작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것 아니냐, 교회 안에서 편당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율법의 본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이다. 옳은 말을 백 번 하는 것보다, 사랑을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이계 안 되면 겸손해야 한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4) 갈라디아서 5:15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과 말씀을 강조하지만 결국 분열되어서 피차 물고 뜯고 싸우는 결과를 낳았다. 그럴 바에는 양보하는 게 낫지 않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 나라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좋은 것 주장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맞다면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5) 갈라디아서 5:19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버리도록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22-23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평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내적 열매를 맺도록, 삶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이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전체적인 방향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셔서, 일곱 램프를 능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시대의 빛이 되는 멋진 중직자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남복이 하나가 되어,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